

## 협회, 제8회 정기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선출과 200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제5대 회장은 티보테크 장흥순 대표가 추대됐다. 제4대 회장에 이어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게 된 장회장은 특유의 기업가 정신과 폭넓은 친화력으로 협회를 이끌어오면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부회장은 12명으로 구성됐다. 서두인칩 유영욱 대표, 휴맥스 변대규 대표, 로커스 김형순 대표,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대표 등이 유임됐고, 이니시스 이금룡 대표, 버추얼텍 서지현 대표,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 씨엔에스 김태희 대표, 렉스진바이

오텍 권석형 대표 등이 새로 합류됐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이지디지털 대표),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전하진 의장(네띠앙 대표)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한다.

이사진에는 유비케어 김진태 대표, 시큐어소프트 김홍선 대표는 유임됐으며 우리기술 김덕우 대표 등 20명이 새로 추대되어 22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협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벤처기업 결속력 강화 및 제도약기반구축'으로 설정하고 대외역량 강화, 벤처인프라 확충, 대회원서비스 강화, 재정건전화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 ... 벤처기업협회 임원진 ...



회장



장흥순  
티보테크 대표



부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



김형순  
로커스 대표



유영욱  
서두인칩 대표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대표



이금룡  
이니시스 대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서지현  
버추얼텍 대표



김태희  
CNS 대표



권석형  
렉스진바이오텍 대표



이영남  
이지디지털 대표



전하진  
네띠앙 대표



권석철  
하우리 대표



김덕우  
우리기술 대표



김병기  
지오인터랙티브 대표



김윤호  
에이폴스 대표



김진태  
유비케어 대표



김홍선  
시큐어소프트 대표



노학영  
컴텍코리아 대표



박성찬  
다날 대표



박진환  
네오위즈 대표



빙준혁  
넷마블 대표



서진구  
코인텍 대표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



이승일  
아후코리아 대표



이용석  
에스컴 대표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이해진  
NHN 대표



임병진  
성진CNC 대표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



정희훈  
이커뮤니티 대표



하정울  
코어세스 대표



홍지준  
코캠엔지니어링 대표



황기수  
코아로직 대표



1. 새로 선출된 임원단의 인사
2. 취임사를 하는 장흥순 회장
3. 벤처기업인을 위한 격려사를 하는 이석영 전 중소기업청장
4. 총회자료를 관심있게 보고있는 회원들



- 5. '2003년 코스닥 등록심사 운영방향' 을 강연하는 정의동 코스닥 위원회 위원장
- 6. '강한 벤처기업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에 관해 강연하고 있는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 7. 2002년도 감사보고하는 강문현 감사
- 8. 임원단을 박수로 격려하는 회원들
- 9. 총회 후 만찬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 KOVA

